

2 에코드라이브 실천 요령

실천 항목	실천 요령
1. 교통정보 생활화	- 교통정보 매체(지도, 인터넷, 교통방송, 내비게이션 등)를 활용하여 운행 전 최적경로 파악
2. 엔진예열 최소화	- 엔진 예열은 10초 정도가 적정하며, 최대 30초를 초과하지 않음
3. 출발은 부드럽게	- 자동차 출발 후 5초까지 시속 20km(1,500rpm)에 맞추어 서서히 출발
4. 정속주행 유지	- 급가감속을 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주행 -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
5. 경제속도 준수	- 일반도로에서는 60~80km/h 준수 - 고속도로에서는 90~100km/h 준수
6. 운행 중 공회전 최소화	- 5초 이상 주정차 시 엔진 정지 - 신호 대기 시 주행모드(D)를 중립모드(N)로 전환 - 고속도로 주행 시 하이패스 활용
7. 관성주행 활용	- 내리막길에서는 엔진브레이크 사용 - 오르막길은 사전에 가속시켜 관성으로 주행 - 교차로 신호를 예견하여 관성으로 정지
8. 적재물 다이어트	- 트렁크를 비우고 불필요한 짐 빼기 - 자동차 연료는 절반만 채워서 운행
9. 타이어 공기압 체크	- 1개월 단위로 공기압을 주기적으로 검사 - 특히, 겨울철은 여름철 대비 최대 40% 공기압이 줄게 되므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 - 점검시점은 운행 전 또는 운행 후 냉간시
10. 에어컨 사용 자제	- 에어컨 사용은 최대한 억제 - 에어컨 사용 시 고단에서 작동 후 저단으로 유지 - 목적지 도달 몇 분전 에어컨 사전 중지
11. 소모품 관리 철저	- 각종 소모품 교환주기 준수 - 최소 1개월에 1회 차량 점검·정비 ※ 공기청정기, 연료필터, 점화플러그, 엔진오일, 에어컨 필터, 배터리, 산소센서, 공기흐름센서, 휠얼라이먼트 등

3 에코드라이브의 효과

에코드라이브 실천은 비용적 절감, 특히 연료비, 타이어 교체비용, 수리비, 유지보수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. 또한 연료소비 절약에 따라 배출가스도 줄게 되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. 뿐만 아니라 에코드라이브의 실천으로 안전한 운전습관이 정착되어 잠정적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.

1) 연료절감

에코드라이브의 실천은 연료를 절감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. 승용차 1대당 연간 15,000km 주행 시 연간 386.9ℓ 정도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는 약 54만천원(1,400원/ℓ 기준)을 절감할 수 있다. 이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10~30%의 연료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. 10% 절감 시 연간 약 31억ℓ 절감시켜 약 4,34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.

2) 온실가스 저감

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. 자동차는 탄화수소(HC), 미세먼지, 온실가스 유발물질인 이산화탄소(CO₂)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다. 특히 최근에는 이산화탄소(CO₂)가 온실가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, 승용차 1대당 연간 약 3.48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며, 이를 상쇄시키려면 소나무 696그루가 필요하다. 에코드라이브를 통해 연료소비 10% 감축 시 348kg의 이산화탄소(CO₂)가 감소되어 참나무 70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.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약 10%인 연간 약 300만톤의 저감 효과를 나타내어 약 9백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.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전 국토의 약 1.5배 해당하는 면적을 녹화하는 것과 같은 개선효과라 볼 수 있다.

3) 교통안전 향상

에코드라이브의 실천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잠정적 교통사고의 30% 가량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. 잠정적 교통사고의 30%가 감소하면 4조 2천억원의 교통사고 비용을 감소하는 등 단기간내에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